



태장동 성당

설립 일. 1983. 11. 9.

주보성인. 103위 한국 순교 성인

2024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제1독서

지혜 1,13-15; 2,23-24

제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

마르 5,21-43



들빛바로가기
www.wjatholic.or.kr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시대의 징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



서 동 신 대건안드레아 신부 /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21세기 현대 가톨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더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최고의 종교 브랜드로서 가톨릭교회도 개점 후 폐업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세계종교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경제 상황 등, 열악한 기회를 틈타 발생하는 다양한 영적 위기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대의 징표가 됩니다. 교황의 삶의 여정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의 겸손 그리고 참 기쁨을 제시해 줌으로 교황은 시대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영적 체험을 통해 시대의 징표가 되는 삶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936년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성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16세 때 성소를 체험한 청년기 시절을 거쳐 32세에 사제 서품을 받고 예수회 신부로서 수련원장, 관구장,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한 후 사목신학을 강의하던 베르골료 신부는 강한 독창성과 분명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영화 두 교황(The Two Popes, 2019)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관구장 시절에 군부독재에 대한 반정부 투쟁에 참여한 예수회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일 때문에 아르헨티나 관구 안에서 강한 거부 반응 속에서 53-55세 때 코르도바에서 중년기를 보내면서 시련을 겪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듯 스스로 인간적으로 어둠의 그림자를 성찰하고 참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구조적인 인간사에 지평이 넓어져 개인과 국가를 넘어 훨씬 폭넓고 깊

게 통찰하는 겸손한 시간을 갖습니다. 비로소 60대 후반에 대주교로서 성령쇄신운동 안에서 성령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마침 교황으로 선출되어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하는 기쁜 영적 체험의 변모의 여정을 겪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인간의 겸손함 그리고 영적 기쁨이라는 영적 체험의 여정을 그는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중 제13주일은 교황 주일입니다. 1독서 지혜서 말씀 중에는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지혜 2,23)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올바른 시대의 징표를 지혜의 원천이신 하느님 안에서 찾아야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풍요 속 빈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해주듯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 중에서는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 줄 것입니다.”(2고린토 8,14)라고 말합니다. 서로 나눔으로 소외와 단절을 극복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인 지금은 마치 죽어가는, 죽어있는 시대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희망과 사랑이 없는 듯한 사막 같은 메마름을 영적 체험 중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에서처럼 “일어나라!”(마르코 5,41)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의지하면서 세상의 어둠 속으로부터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와 프란치스코 교황을 시대의 징표로 삼고 다시 일어나 도약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기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태장동 성당

태장동 지역의 유래 : 태장동(台庄洞)은 원주시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동(洞)으로 태봉(胎峰)이 있어 태장(胎藏)이라고 하고 1955년 시로 승격, 연합 동제로 통합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태장동은 1군 사령부, 캠프롱, 1군 부사관학교, 1군 수자원 사령부의 군사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고 주민 대부분이 6.25 이후 각지에서 물려든 실향민이었다. 1977년 십자회를 조직하고 성당 건립을 추진했다. 1981년 태장 2동, 가현동과 소초, 곤의골, 영산 공소를 관할하는 본당이 설립되었다.

1981년 9월 30일 초대 배은하 신부님은 개척 본당의 어려운 살림이지만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우여곡절 끝에 1983년 11월 9일 '103위 성인을 후보성인'으로 모신 아름다운 '200주년 기념 성당'을 봉헌하였다.

제2대 백승치 신부님은 1층 사제관 왼쪽 벽에 초라하게 모셨던 성모상을 현 위치에 동산을 만들어 이전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에도 1987년 성당 마당 부지 매입 추진위원회(회장 이철호 베드로)를 결성하고, 가구당 땅 2평 봉헌운동을 전개하면서 400여 평의 넓은 성당 마당을 확보했다. 본당 설정 10주년이 되는 1991년 사무실과 성물 판매소(10평)를 마련하였고 태장동 성당 10년사를 출간하였고, 본당 가를 만들었다. 1992년 1월에는 한국순교자의모후꾸리아를 설립했다.

제5대 이영섭 신부님은 1993년 5월 곤의골 공소 동굴 성모상을 축성했고 1995년 4월 소초 공소를 일부 정비하고 성모상을 축성했다. 제6대 박흥준 신부님이 부임했다. 숙원이었던 성당 앞 주택 한 동(대지 106평, 건평 43.37평)을

매입하여 수녀원으로 만들고 1995년 6월 11일에 축성을 했다. 제8대 이학근 신부님은 2001년 5월에 교육관을 신축하고 축복식을 가졌다. 제9대 김한기 신부님은 2003년 7월 본당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목을 활발히 전개하여 컴퓨터 35대를 설치 한국어 교실을 개설했고 영어 미사도 신설했다.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성전 개축공사를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지금까지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현재 박영수 신부님이 함께 하신다. 삼삼오오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만남의 방을 마련하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 성당 오르내리기가 참 편해졌다. 주일학교가 다시 열렸고 성서 40주간과 빈첸시오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하여 매월 첫 주 성화(영화) 상영을 하고 있고 해마다 나들이와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

관할구역이었던 태장 1동 성당, 소초 성당, 영산 성당의 신축 봉헌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진 빛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시골 본당을 돕는 본당으로 성장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지나온 43년 동안 흘린 전 신자의 기도와 땀이 곳곳에 서려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가오는 2031년 50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 성모동산



◀ 수녀원 정원

미사 때 신자들도 신부님처럼 성혈과 성체를 함께 모실 수 있나요?

미사 때 신자들이 성체와 성혈을 함께 모시는 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합니다.

양형 영성체는 사제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세례, 견진, 혼인, 서품, 서원, 병자성사, 피정 등의 경우에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0조 참조).

양형 영성체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신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마태 26,27).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셨던 그대로 미사 때 성체와 성혈을 나누었습니다. 이 전통은 12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성혈을 마시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성체 때 신자들이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있고, 둘째는 성체 안에 온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피를 포함하여 현존하신다는 신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는 예수님의 살만 존재하고 성혈 안에는 예수님의 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에도 온전히 예수님께서 현존하시고 성혈 안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세부터 성체만 모셔도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성혈을 흘릴 위험성을 막으려고 신자들에게는 성체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1415년 독일 콘스탄츠 공의회는 성혈을 신자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였고,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양형 영성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경우 신자들도 성혈을 받아 모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전례 헌장 55항 참조). 양형 영성체는 성체를 받아 모신 뒤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마시는 방법과 축성된 빵을 성혈에 적셔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286-287항 참조).

은혜로운 시간 첫영성체

정 경 희 실비아 / 봉산동 본당 첫영성체 준비팀

지난 6월 2일 성체 성혈 대축일은 교회의 기쁨이고 하느님 나라의 기쁨인 14명의 어린이들이 첫영성체를 하는 경사로운 날이었다. 하얀 드레스와 깔끔한 흰옷의 정장을 한 어린이들이 촛불을 들고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입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스러웠다.

지난 5월 1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 90분씩 한 달 동안 뽀뽀한 첫영성체 교리 일정을 소화한 아이들의 모습은 지켜보는 부모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참 재미있다. 친구들이 좋다”라는 기쁨에 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부님으로부터 성경 전달을 받고 마르코복음을 가족과 함께 필사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쓴 숙제 아닌 숙제는 가족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나로 묶어주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감사거리를 서로 찾기 위해 고심 하였는데 며칠이 지나니 일상에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음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한마음으로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어린이들과 가정을 끈끈하게 묶어주었던 것은 “나자렛 성가정”이라는 주제로 서울 살레시오 교육 영성 팀과 함께한 피정이었다. 신나고 즐거운 노래와 율동을 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귓속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성가정의 참된 의미를 체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교리가 끝나면 성당 안을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와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안에서 솟아나는 하느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교리가 끝나고 늦도록 집에 가지 않고 있는 마냥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향해 물을 뿌려서 돌려

보내는 수녀님의 장난스러움은 개구쟁이 아이들의 기쁨을 더욱 부추겼다.

아이들 교육과 더불어 부모 교육 또한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이었다. 신부님, 수녀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부모 교육은 신앙 안에서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첫영성체를 시작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다소 버겁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부모가 일체가 되어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서로 챙기며 배려하는 신앙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첫영성체가 끝나서 좋다는 표현보다는 자주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아이들의 표현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놀고 성장하는 아름다움을 배우고 느낀 것 같아 이렇게 복된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느님께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 속담처럼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 말없이 수고해준 3명의 준비팀, 그리고 한결같이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풀어주신 신부님,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라는 우리 본당 신부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첫영성체를 통해 받은 은총이 오래오래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교구장 동정



6월 30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사직동 성당)
7월 4일(목) 진 야고보 신부 순교지 축복 및 동상 제막식
미사 및 성시간(원동 주교좌 성당)
7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무실동 성당)

기억해드립니다



선종 22주기
7월 1일(월)
이영섭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축하드립니다

수품일 7월 5일(금) 김대중 신부

영명일 7월 3일(수) 토마스 : 신우식, 박양업 신부

5일(금) 대건안드레아 : 성현, 서동신, 성원경, 구회륜, 양종욱 신부



들빛 이모 저모 최양업 신부님 시복 기원 순례 대축제 / 6월 15일(토)



교구 알림

성서사십주간

비대면(Zoom) : 7월 2일(화) 20시
대면 : 7월 2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7월 3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7월 4일(목) 횡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미사·피정·연수

예비신학생 월모임

때 : 6월 30일(주일) 11시~15시 /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부모, 자모 교육

때 : 6월 30일(주일) 15시~17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강당

주제 : “메타인지 학습법”

강사 : 리사 손(컬럼비아대학교 버나드대학 심리학과 부교수)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본당 자모회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연령회 연합회 연습교육

때 : 7월 1일(월) 19시 / 곳 : 명륜동성당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성심회 미사

때 : 7월 2일(화) 18시30분~19시30분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교구 성령쇄신 금요기도회

때, 곳 : 7월 5일(금) 19시30분~23시30분, 구곡성당
강사 :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주제 :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마태 25,21)

미사 : 김현우 바오로 신부(미사 후 안수)
문의 : 010-8919-9731

파티마 세계사도직 첫 토요일 신심미사

때 : 7월 6일(토) 9시부터
곳 : 단구동성당(미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
문의 : 회장 010-4342-3535

들빛누리후원회, 미카엘봉사자회, 멜라니아회 월례미사

때 : 7월 6일(토) 10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교황문헌 연수

때, 곳 : 7월 6일(토) 10시~12시,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김성배(프란치스코), 정찬아(글라리)
고토비료, 골재, 부순모래, 조경석
T.033-762-5252~5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전두표(바오로), 여성자(로사)
등기, 민사, 호적, 법률상담
T.033-344-3888, 2888(형성군형 앞)

파리바게트 무실세영점

단팻빵, 크림빵, 케익 등 베이커리 일체.
단체주문 환영
장금자(테레사)
T.033-745-8230, 010-5225-9861

라파엘가을특선 성지순례안내

9/11추석특선알프스와중세수도원10일
(545만원)
10/13성모님3대발현지13일485만원
11/18스페인,포르투갈12일(449만원)
25/1/6과달루페성모님발현지10일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최경훈 내과(심장클리닉)

최경훈(마르코), 한숙자(헬레나)
고혈압·심혈관 질환 전문
대학병원급 심초음파 전문 장비 보유
24시간, 72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열동열암, 동맥경화검사
T.033-742-7400 원주세브란스병원 앞

바른한의원

www.baro75.co.kr
유경철(요셉) 신창숙(루시아)
043-642-8585
제천 중앙시장 1층 다동

임마누엘 가톨릭결혼정보

이 수산나
50년 전통 최고의 성혼를
신앙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남을 주선
부모님 상담 환영/늦은 초혼·재혼 전문
02-757-3343
명동성당 앞 태흥빌딩808호

3H 지압침대 원주무실센터

신순남(세라피나), 강일성(요셉)
목, 척추교정 및 허리디스크에 좋은
지압침대
033-735-3737, 010-8994-3775

연세프라임안과

이석준(미카엘), 박명호
각종 안과 수술 전문
T.033-731-2753
연세안과
현재현, 송정호(마리안나)
T.033-731-0505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나서도록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지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청년연합미사

때 : 7월 7일(주일) 19시 / 곳 : 구국성당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레지아 월례회의

때 : 7월 7일(주일) 13시 / 곳 : 원동 주교좌성당

'엠마우스 성음악 합창단' 창단 10주년 정기 연주회

1차 : 7월 7일(주일) 16시 / 용소막 성당
2차 : 7월 14일(주일) 16시 / 봉산동 성당
주관 : 원주교구 성음악 위원회
* 많은 관람 바랍니다.

하반기 어르신대학 봉사자 연수

때 : 7월 18일(목) 13시30분~16시 / 곳 : 가톨릭센터
대상 : 어르신대학 봉사자, 어르신대학에 관심 있는 분
강사 : 최재도 바오로 신부
참가비 : 10,000원

농협 317-0009-5405-41 천주교원주교구

입금시 본당명과 성함을 함께 표기(예 : 원동 홍길동)

본당 단체로 입금 시 대표자명을 표기

신청 : 7월 12일(금) 까지 F. 033-765-4223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하계 캠프

주제 :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스바 3,14)

때 : 7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곳 : 춘천교구 옥계성당

대상 :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및

사제성소에 관심있는 일반 청년

준비물 : 미사 준비, 목주, 수영복, 세면도구 등

참가비 : 1인당 80,000원

마감 : 7월 17일(수)까지 F. 033-765-4223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복사학교

주제 :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16)

때 : 7월 30일(화)~8월 1일(목), 2박 3일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남·여 복사 단원,

복사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6학년(선착순 40명)

내용 : 복사교육 및 신앙교육

준비물 : 1인당 복사복 1벌(여-머리망), 세면도구 등

참가비 : 1인당 80,000원(2박 6식)

신청 : 7월 17일(수)까지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wjc4220@hanmail.net 로 접수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바오로딸과 함께하는 피정

때 : 7월 13일(토)~14일(주일), 2030 미혼여성

8월 3일(토)~4일(주일), 여중고생

곳 : 여주 / 문의 : 김데레사 수녀 010-7251-1908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5(금)~7(일)

효소단식: 7.11(목)~14(일), 8.9(금)~12(월)

성경완독: 7.26(금)~8.3(토), 8.23(금)~31(토)

문의 :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010-3340-0201

채용·모집·기타

"가톨릭 미술가회 본당순회 전시회" 개최

때 : 7월 6일(토)~15일(일)

곳 : 봉산동 성당

문의 : 봉산동 성당 010-5369-4838

천사들의집 장애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도보순례 자원봉사자 모집

선종안신부길 : 금대순례공원→용소막성당

때 : 7월 13일(토) 8시~16시

접수 : 010-9047-8424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천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1명 모집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시 따뜻한 마음의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담당자 033-747-8555~6

2024 모여라 가톨릭 영상 공모전 안내

주제 : 신앙캠프 뭐하니?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와 관련된 자유 영상)

참가자격 : 본당/단체/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접수기간 : 8월 1일(목)~9월 1일(주일)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

<https://mocatolic.or.kr>에 영상등록

문의 :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가톨릭팀

031-8019-5403

교구청 직원 채용 공고

모집부문 : 관리국 1명, 가정사목국 1명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근무, 4대 보험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교적 사본과 세례증명서 등

※ 회계 경리 업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경력 필히 기재 요망

마감 : 7월 10일(수) 16시 접수 서류까지

방법 : 일반/전자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우편 : 원주시 원일로 28 / 교구청 사무처

메일 : wjsamu@daum.net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jcatolic.or.kr→교구소식) 참조

※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채용공고 바로가기



6월 30일

교향 주일

베드로 성금

오늘은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7월 [희망의 순례] 참가 신청

[희망의 순례]는 최양업 신부님과 연관된
탄생지, 성장지, 사목지 30곳을 선정하여 최양
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희망하는 순례를 하면
서, 전구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기적)**이 드러나기를 기원하는 순례 운동입니
다. 원주교구 순교자현양회 준비모임에서 **최양
업 신부님께서 석 달 동안 피신하셨던 죽림굴
[희망의 순례]**를 준비했습니다.

순례성지 : 28죽림굴(미사 11시 죽림굴에서)

출발일시 : 7월 4일(목) 07시 출발

출발장소 : 원주 따뚜공연장

지참물 : 음료수 및 개인 간식, 미사참례 도구,
[희망의 순례자] 책자

참가비 : 20,000원(중식 포함)

[농협 301-0324-3004-41 천주교원주교구]

참가신청 : 010-5361-2276

** 중요 : 전화로 신청하신 후 즉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선착순 40명입니다.

상지식자재 할인마트

이희(마티아), 김향수(엘리사벳)

최저가판매 및 납품

일반고객 환영

T.033-733-5400(우산동)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위 대장내시경, 간·유방·갑상선 초음파

고혈압·당뇨·만성기침·만성피로 증후군

8시 진료 시작(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 86)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우명숙(글라라), 김길영(마르티노)

T.033-647-6063(강릉 임당동)

033-531-7887(동해 묵오동)

한일중기 불보건설기계

송철희(대건안드레아), 김명옥(마리아)

불보 중장비 정비/부품

T.043-645-0308, 010-8790-4800

충북 제천시 왕암동 998

(주)알렉스분석시험소

김만기(막시밀리안노클베), 황병훈(유스토)

국제공인시험기관

분야 : 폐기물 (PCBs), 수질, 생체독성,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건축자재방출시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T.033-744-2817 / www.alexlab.co.kr

세신종합주방 할인마트

김종운(도마)

업소용 주방기구설비 제작전문

가정용 그릇, 관공서, 닥트

T.033-734-6060, 010-8793-5174

원주시 천사로 258(학성동)

서울미소플란트치과

국태성(안토니오), 강로사(로사)

서울대 치과병원 전문의 진료

임플란트, 충치치료, 잇몸치료

T.043-651-2275

제천 용두천로 86(보령약국 건물) 3층

영웅앵글

함정선(말가리다) 조삼천(바오로)

조립식 앵글선반/창고 공장 파렛트랙 설치

T.033-742-9493

원주시 평원로 106(학성동 331-3)